



천혜의 관광자원이 숨쉬는 인제

강 욱
자유기고가

강원도 영서 북부에 위치한 인제군은 1,646.33 km²라는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산과 계곡이 90%를 차지한 그야말로 산의 고장이다.

“많은 산들이 깊고 멀어/ 수레와 말 탄 사람 오는 이 없고/ 한 가닥 길만이 돌 개천을 따라 가네”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조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진주(晋州) 사람 하연(河演)의 시는 인제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주 산맥인 동북단의 금강산맥과 동남단의 오대산맥이 유입하여 설악산을 비롯한 향로봉, 대암산, 점봉산, 방태산 등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56개의 명산을 빚어 놓았고, 하천으로는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여 소양강으로 흘러들어 어디를 가나 명승지 아닌 곳이 없다.

또한 희귀 동식물이 많으므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3개소나 있다. 일찍부터 산림문화가 발달하여 ‘숯굽기’, ‘갈이남박’, ‘보습굽기’, ‘배

모으기’, ‘뗏목놀이’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민속경연에서 수차례 입상하였고, 지금은 천연적인 자연경관을 이용한 체험관광지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인제군의 이름을 듣고 대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가겠네” 라는 말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인제군과 이 군의 북면 원통리 이름을 따서 엮은 이 말은 인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에게도 이 군이 깊은 산골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본디 이 말은 “못가겠네.” 라는 말 자리에 “못 보내겠네.” 라는 말이 쓰였었는데 특히 이 군에서 군대 생활을 보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이 바뀌어 널리 퍼졌다고 한다.

그 말의 유래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임금이 난리를 피해서 이 고을에 와서 머물렀다고 한다. 그는 서울의 형편을 궁금하게 여기고 몇 차례나 서울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아무도 되돌아오지 않자 한 사람을 보내면서 “인제 가면 언제 오겠



느냐”고 묻고 만일에 또 돌아오지 않는다면 “원통해서 못 보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 뒤로 그 말은 쓰임새가 바뀌어 인심이 순박한 이 고을에서 다른 지방으로 식구를 떠나보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말로 쓰였다가 요새는 워낙 깊은 산골인지라 다른 지방에서 이 곳으로 갈 적에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인제군에 있는 유명한 절 백담사는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흘러온 맑은 물이 합쳐지는 백담계곡 위에 있어 내설악을 오르느 길잡이가 되고 있다.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에 자장율사가 세웠는데, 처음에 한계사라 불렀으나 그 후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가 백 개 있어 백담사라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이 절은 십여 차례 소실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1957년에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는 등 역사적 곡절이 많았다. 사보(寺寶)로는 자장율사의 유물인 미타불상 3위와 소종 1좌와 인조가 설정대사에게 하사한 칠층 소형 옥탑 등이 있으며, 암자로는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등이 있다. 또한 백담사는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불교계의 선각자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이 머리를 깎고 수도한 곳으로 유명하다.

백담사 극락보전에 주불로 봉안된 목조 아미타불좌상은 그 내부에서 발견된 저고리 등의 유물과 함께 보물 제 118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유물은 불상 1구와 발원문 4매, 저고리 1점이다. 그 중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높이 87cm로 영조 24년(1748)에 조성된 것이다. 머리 정상에는 계주가

큼직하게 솟아 있고 육계는 구분이 불분명하며 나발은 촘촘하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둥글고 단아하며 당시의 사각형에 평판적인 얼굴보다 우수하다. 상체는 가슴이 넓고 어깨가 둥글어 당당한 인상을 주며, 하체는 앉아 있는 모습이 넓고 큼직하며 상체와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의 목조 불상 가운데 대표 작품임을 알려 준다.

한편 백담사 가는 초입에는 만해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만해마을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에 민족혼을 불어 넣어준 대선사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을 기리고, 그를 정신적 지도자로 선양하기 위한 도장으로 건립된 곳이다. 만해 문학박물관, 만해촌, 만해학교, 서원보전, 심우장, 님의 침묵 만해광장 등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새로운 사찰을 원하는 종교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시도된 종교적 공간이자 사회교육의 공간이다.

예로부터 이 군의 삼대 특산물로 씨 없는 배로 알려진 ‘무심이’, 흑염소로 불리는 검은 빛깔의 재래종 ‘염소’, 산 속의 돌 틈이나 나무 틈새에 벌이 모아 놓은 꿀로 산삼만큼이나 영약으로 치는 ‘석청’ 등이 꼽혀 왔다.

무심이는 길쭉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그다지 볼품은 없으나, 사과와 씨방 같은 작고 연한 씨방이 있긴 있되 씨가 없을뿐더러, 여느 배에 견주어 껍질이 얇아서 못 먹고 버리는 부분이 적으며 물이 많고 맛이 뛰어나 조선 시대에는 진상품으로 바쳐졌다고 한다.

여느 배와 달리 첫눈이 내린 뒤에야 노란 빛깔로 익는 이 배를 싹둑에 물어 두면

한겨울에 더욱더 노란 빛깔을 띠고 향기가 짙어지는데 이 배나무는 신라 선덕 여왕 때에 이름난 중 자장이 당나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전해 온다. 강원도 지방에 “인제 원님은 배 자랑하고, 횡성 원님은 앞뜰 자랑한다.”는 말이 속담처럼 전해 올 만큼 이 군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이름난 이 배나무는 요새도 기후의 풍토가 알맞은 이 군을 벗어나면 말라죽어 버린다고 한다.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는 한계사지가 있다.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져 여러 차례 화재를 당하여 중건을 거듭하다 조선시대에 폐사된 사찰 터이다. 1984년에 발굴하여 확인된 금당지의 규모는 동서 9.5m, 남북 6.8m의 크기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이외에도 동서쪽 등지에 부속 건물터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절터에는 석탑, 석등, 석불 등의 부재가 남아 있는데 모두 9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다.

또한 한계리에는 신라 말 경순왕의 전설이 전해 오는 유서 깊은 산성인 한계산성이 있다. 이 성이 언제 축성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천연적인 험준함에 의지하여 골짜기를 에워싼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은 거의 무너졌으나 옥녀탕 골짜기의 문터와 그 연장부는 견고한 내외 겹축의 물매 있는 성벽을 보여 준다. 켜기돌을 이용하여 자연 할석을 조금씩 다듬어 쌓은 점이나, 성벽 구조에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고려 말기의 산성 축조 양식을 잘 보여준다.

고려 시대 기록에 따르면, 고려 고종 46년(1259) 2월에 함경도 지방의 일부 세력이 고려를 배반하고 몽고 사람을 끌어들여

이곳을 공격했으나, 산성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출격하여 모두 목을 베었다고 한다. 이 전투 이후로 북방 오랑캐와 왜구에 대비하여 계속 성을 쌓았음을 성안의 비석 명문이 밝혀준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둘레 6,278척, 높이 4척이고 성안에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설악의 험한 산지에 축조한 한국 특유의 산성 양식으로 유서 깊은 곳이다.

십이선녀탕은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와 탕이 서 흐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끔 한다. 옛 말에 12탕 12폭을 흔히 ‘십이선녀탕’이라고 불러 왔으며, 탕의 모양이 장구한 세월에 거친 하상작용에 의해 오목하거나 반석이 넓고 깊은 구멍을 형성하는 등 신기하고 기막힌 형상을 이룬다.

십이선녀탕을 찾아가는 계곡에는 단풍나무, 전나무, 박달나무, 소나무 등 거목이 우거져 있어, 계곡의 모습이 황홀하기 그지없다. 십이선녀탕 계곡은 물을 건너는 곳마다 많은 철다리가 놓여있으나, 전형적인 V자 협곡이므로 폭우가 내린 경우에는 상류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계곡은 가을단풍철을 제외하고는 일년 내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계곡 최상류에서 안내판을 따라 대승령까지 가는 경우 길을 혼동하기 쉬운 지형연속으로 구슬 같은 푸른 물과 우뢰와 같은 괴성으로 갖은 변화와 기교를 부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올 경우 길을 잘못 드는 일이 많으므로 나침반과 지도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함강정은 인제읍 함강 2리에 위치한 유



서 깊은 정자다. 소양강 상류인 내린천이 기린방면으로부터 흘러들고 서화강과 한계천이 합류 후 흘러들어 이 지점에서 합류한다는 것에 연유해 명명되어 조선시대 중엽부터 합강정으로 불려 내려오고 있다. 합강정은 인제지역에 향교가 창건되면서(1610), 66년이 지난 숙종 2년 병진년(1676)에 금부도사를 역임한 바 있는 현감 이세억이 재임(1675~1677)시절 지형적으로 전망이 좋은 합강리(현 위치의 아래인 아스팔트 국도)에 합강정이 세워졌으며, 이것이 인제지역 누정 건립의 효시이다.

겨울철의 인제는 빙어와 얼음의 천국이 된다. 인제군 내설악 지류와 내린천의 관문인 소양호에서 은빛 빙어를 주제로 펼쳐지는 ‘빙어 축제’는 맑고 투명한 빙어와 눈 덮인 내설악 경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산촌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인제군민의 고유한 축제이다. ‘빙어축제’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었는데, 축제 행사에는 돌축구를 겸한 각종 체육행사와 썰매타기를 겸한 민속행사들, 그리고 빙어 낚시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